

園城寺의 新羅明神信仰

金 文 經*

I

日本天台宗求法僧들의 入唐에는 新羅神의 신앙과 매우 관계가 깊다. 開祖 最澄(767~823)이 804년 入唐에 앞서 豊前國 田川郡 香春에서 新羅神을 奉祀하였던 일이나¹⁾, 入唐僧 圓仁(794~864)이 귀국한 후 제자들에게 유언하여 赤山新羅神을 比叡山麓에다 봉헌하게 한 사실이나²⁾, 圓珍(814~891)이 新羅明神을 園城寺³⁾에 奉齋한 일들이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最澄은 新羅神에게 도해의 가호를 기원하였고, 圓仁은 항해 중의 구난과 구법달성의 靈驗神으로 奉齋하였으며, 圓珍은 航海의 安全과 佛法의 守護神으로 奉祀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은 航海와 求法에 반드시 新羅神을 奉祀하였다. 그것은 당시 新羅人의 海上活動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또한 이 시기 日本國內에 뿌리내린 新羅 이주민 사회의 힘이 海上에서 활동한 신라인세력 못지 않게 강성했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그런데 종전 日本學者들의 新羅神에 관한 논문들은⁴⁾ 이 신이 日本에 鎮座하게 된 내력과 그 神格의 규명에 치중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 그것도 韓國史와 韓國佛敎史를 경시 내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고증을 서둘러 옳바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 人文大學 史學科 教授

1) 叡山大師傳

2) 慈覺大師傳

3) 滋賀縣大津市所在. 天台寺門宗 總本山. 672年 建立. 860年 境內에 新羅神社 建立. 971年 新羅明神에게 正四位上을 수여. 1052년 新羅明神社에 新羅祭 行함. 1073年 後三條上皇祭文을 新羅明神에게 봉정. 1106年 新羅明神에게 栢木郷의 貢物 72석을 每年 기증케 함. 1153年 房覺 新羅社에 17日 供花. 1342년 尊氏 粟津別保의 地頭職을 新羅明神社에 증여. 1412年 新羅社護摩堂을 경하함. 1953年 新羅善神堂 國寶로 지정. 1956년 新羅明神坐像 國寶로 지정. 韓國관계의 重要文化財로는 大平 12(1031)年銘의 高麗鍾과 高麗大藏經板, 日本鎌倉·室町時代의 新羅明神像 3점 등이 있다.

4) 辻善之助, 「新羅明神考」, 『歷史地理』 25-1, 大正4年(1915), 東京; 宮地直一, 「平安期に於ける 新羅明神」, 『園城寺之研究』, 1931, 京都; 鏡山猛, 「日唐交通と 新羅神の信仰」, 『史淵』 18·19, 九州大學史學會, 1938; 荻野三七彦, 「赤山の神と 新羅明神」, 天台學會, 1963, 東京.

본고에서는 연구대상을 園城寺에 遷祀된 新羅明神에만 한정하고 당시 圓珍이 이 신라신을 奉齋할 수 밖에 없었던 文化的 배경, 즉 어떠한 歷史的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어떤 神格으로 언제 遷祀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특히 園城寺 일원의 사회가 어떠했기에 圓珍이 이국신을 奉祀해야 했는가 하는 점을 밝힐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소상이 규명된다면 日本天台僧들의 정신적 사상의 원류의 한 면은 물론, 그때의 日本文化에 대한 韓國文化의 역사적 위치도 자연히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

II

日本天台宗門의 5世座主 圓珍⁵⁾은 大中 7年(853) 新羅 貿易商 欽良暉⁶⁾의 선편으로 入唐하여 大中 12年(858) 6월에 渤海國 商人 李延孝의 선편으로 귀국한다. 「園城寺龍華會緣記」에

夫以祖師智證大師承和年中 爲授持佛法 渡海入唐 (中略) 遂歸本朝 有一老翁現於船中曰 我是新羅國明神也 爲和尚護持佛法 期以慈尊出世 作是言畢其形不見矣 和尚歸朝之日 公家令所持佛法運納于太政官 于時前日老翁來云 此日本國有一勝地 宜建立一伽藍 安置此佛法 遂到近江國滋賀郡園城寺 (中略) 本是大友太政大臣之家地也 太政大臣奉天智天皇勅以崇福寺建立此地 造顯丈六彌勒像安置院 爰天皇夢中有示現 勅太政大臣亦始建立 今崇福寺也 (中略) 以寺永奉附屬和尚矣 付屬之後 明神住寺北野 (下略)

라 있어, 新羅明神이 圓珍의 귀국선중에 老翁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教法護持를 맹서하고, 뒤에 가서는 園城寺 창건의 寺地를 선정해 주었다는 전승이며 滋賀大友郷의 호족 大友氏와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한다.

이 밖의 자료⁷⁾에도 新羅明神이 園城寺에 鎮座하게 된 내력과 그 신의 영험, 神格의 向上, 寺門鎮護의

-
- 5) 圓珍(814~891). 名 廣雄. 讚岐國那珂郡金倉郷. 父和氣宅成, 母佐伯氏. 寺門派開祖. 貞觀2年(860) 天台五世座主가 됨.
 - 6) 延喜2年(902) 三善清行이 撰한 『智證大師傳』(天台宗延曆寺座主圓珍傳)에는, “嘉祥四年(851) 四月十日 辭京輩向大宰府 (中略) 仁壽二年(852) 閏八月 值大唐國商人欽良暉交關船來 三年(853) 七月十六日 上船到值嘉島 停泊鳴浦 八月初九日 放船入海”라 있어, 日本의 圓珍연구자들은 欽良暉를 唐商人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圓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卷4 大中元年(847) 6月 9日條에 의하면 “得蘇州船上唐人江長新羅人金子白 欽良暉 金珍等書云”이라 있어 新羅人임을 알 수 있다. 『寺門傳記補錄』卷10 大師家傳 卷上에 “(前略) 師歸朝上表云 七月十六日 始隨新羅船發赴大唐”이라 있으며, 圓珍이 大中 12年(858) 閏2月 台州에서 公驗을 請求하는 글 가운데 “(前略) 至三年(853) 七月十六日 隨新羅商人王超等船過海 唐大中七年九月十四日達福州”라 하고 있어 新羅船을 타고 入唐했음을 알 수 있다.
 - 7) 本朝續文粹 古今著聞集 元亨釋書 園城寺傳記 寺德集 新羅明神記 智證大師年譜 寺門傳記寶錄

지위확보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史的 研究對象으로 삼기에는 신증을 기해야 할 부분이 많다. 그렇지만 이 新羅明神에 관한 寺傳記錄과 다른 資料들을 상세히 검토해 보면, 그 때 이 神이 園城寺에 座하게 된 연유와 그 주변지역의 社會像, 그리고 이 신을 奉迎한 사람들의 出身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다.

辻善之助는 「新羅明神考」에서 新羅明神의 船中出現傳說이 圓珍自記로 된 「行歷抄」이나 圓珍傳記 가운데 가장 정확하다고 전해지는 三善清行(847~901)撰 「智證大師傳」(天台宗延曆寺座主圓珍傳)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는 등 몇 가지 자료를 인용하여, 新羅明神은 山門(圓仁系)과 寺門(圓珍系) 양과 싸움이 격화되던 圓融期(969~983) 때 봉사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그 이유로 그는 天祿2年(971) 5月5日 新羅明神에 正四位上을 제수한 사실이 『僧綱補任抄出』에 보인다는 점을 들어 이때 처음으로 봉사된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또 奉齋된 이유를 山門이 享祀하는 新羅神인 赤山明神에 대항하여 園城寺에서는 新羅明神의 이름으로 奉崇되었다고 추론하고 있다.

그런데 辻善之助는 山門, 寺門 兩派가 왜 모두 新羅神을 모셔야 했고 무엇 때문에 이 神을 앞세워 相爭하였으며 이 外來神에게 正四位上의 위를 수여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의 그 곳 社會像을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그는 「太政官牒」⁸⁾을 인용하여 園城寺는 원래 大友村主家の 氏寺이던 것을 뒤에 圓珍에게 회사하여 天台別院으로 삼고 圓珍의 門脈으로 뒤를 잇게 한 내력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氏族과 大友皇子(弘文天皇, 672)와의 관계는 뒤에 附會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 그는 『大日本史氏族志』의 기록을 인용하여 大友村主를 志賀忌寸과도 동씨족이라고 하고 모두 漢主 劉協, 즉 後漢 獻帝의 후예라 주장하였다. 그래서 『續日本紀』⁹⁾에 나오는 右京人大友村主廣道 近江國 野州郡人 大友民日左龍人 등과도 같은 씨족이라 하였지만 氏寺의 건립연대는 알 수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宮地直一은 앞 논문에서 「太政官牒」에 나오는 滋賀郡의 大友村主夜須良磨 大友村主黑主 등을 고래의 顯族이라 추정하고, 이들의 원거주지를 大友郷, 즉 지금의 大津市 坂本 부근이라 추정하였다. 그리고 남쪽으로 滋賀村과 지금의 園城寺가 있는 옛 錦部郷 일원을 이들 일족의 거주지로 보았다. 그런데 宮地氏도 역시 이들을 後漢 獻帝의 후예로 추정한 것은 辻氏와 다를 바 없다. 그리고 正倉院收藏 「滋賀郡古市郷計帳」의 神龜元年(724) 同2年(725), 天平元年(729) 同2年(730) 同14年(742) 등 기록에 나오는 大友但波史廣麻呂 大友漢人若子賣 大友村主宿奈尼賣 大友日佐廣羽賣 등도 漢에서 '歸化'한 동일계 씨족으로 고증하고 있다. 그리고 計帳에 나오는 上村主諸足賣를 『新撰姓氏錄』 左京諸蕃下에 보이는

8) 太政官牒 延曆寺 以園城寺爲天台別院事。 “右太政官今日下近江國符爾 滋賀郡擬少領從七位相大友村主夜須良磨解狀稱 謹檢案內 太政官 貞觀4年(862) 十月十七日下國稱 大領從八位上大友村主黑主等解稱 件寺停講讀師攝領 以十禪師傳燈大法師位圓珍任別當 今加修治 兼演淵法音者 國司覆審 所陳有實 (中略) 望請長爲天台別院 以件圓珍 爲主持之人 其別當者 先舉用 圓珍血脈 (中略) 右大臣宜奉勅依請者 國宜承知 依宜行之者 寺宜承知 牒到准狀 故牒。”

9) 『續日本紀』 卷39 桓武紀 延曆6年 7月 戊辰條.

廣階連과 함께 魏 曹植의 후손이라 하고 역시 計帳의 高史可太賣를 高句麗 ‘歸化人’으로, 阿直史姪賣를 應神朝(5세기初)에 건너온 阿直岐의 후예인 百濟人으로 논증하였다.

그런데 宮地氏는 外來씨족의 祭神은 그들의 원거주지의 神과 일치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續日本紀』와 『姓氏錄』의 坂上系圖를¹⁰⁾ 참고하여 新羅明神의 도래를 다음과 같이 궁색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일족은 後漢 靈帝의 曾孫 阿智王의 후손인데 漢이 멸망하고 魏가 건국되자 阿智王은 帶方으로 이주했다가 應神朝에 投化했다”고 하고 다시 “阿智王의 來朝 때 人民男女가 이산하여 高句麗, 百濟, 新羅 등지에 들어갔다. 이에 다시 勅을 내려 日本으로 소환하니 仁德朝(5세기前半)에 도래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 “이들은 일단 大和의 高市郡에 移置되었다가 다시 攝津 參河 近江 播磨 阿波 등지에 분치되었다”고 설명하고 이로써 “滋賀郡의 大友村主와 같은 漢人系 씨족은 본래 坂上村村의 부족으로 仁德朝에 日本으로 移置된 씨족 가운데 하나였다는 근거를 찾아낼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新羅神의 봉사에 관해서는 “그들은 新羅에 寓居한 유민의 일부로서 뒤에 다시 소환에 응하여 入朝했을 때 新羅에서 崇奉하던 神을 遷祀하여 定住한 땅에서 이 神을 奉齋하게 되었다고 推定하는 것도 可能하다”라고 결론짓고 있다. 그리고 그는 新羅明神이 지금의 땅에 移祀된 것은 “언제라고 決定짓기는 힘들지만 아마도 그들이(大友氏) 이곳에 도착한 奈良期(710~784)이거나 혹은 그 이전의 時代였을 것이며, 그 장소도 처음부터 현재의 땅, 곧 三井(大津市)의 北野라 일컬어진 湖岸山麓의 승경의 땅이었다”고 추정한 뒤 寺刹은 貞觀4年(862) 圓珍에게 회사되어 天台別院이 되고 新羅明神 또한 天台 管理下에 놓이게 되었다고 논증하였다.¹¹⁾

『古事記』에는 외국으로 부터 日本에 건너 온 사람들을 “參渡來”자라고 표현하고 있다.¹²⁾ 보다 뒤에 편찬된 『日本書紀』에서는 ‘渡來’자의 뜻이 어떠한지 일률적으로 ‘歸化’ ‘化歸’ ‘來化’ ‘投化’ ‘化來’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¹³⁾ 더욱이 더 뒤에 편찬된 『續日本紀』에서는 ‘歸化聖境’했다고 까지 표현하고 있다.¹⁴⁾ 곧 ‘欽化內歸’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이들 3書가 그 당시 위정자들의 政治的 의도로 편찬되었으면서도 『古事記』의 표현은 다른 것에 비해 소박하다. 이에 반하여 후자 들은 律令國家의

10) 『姓氏錄逸文』第 23 卷. “阿智王 譽田天皇(諡 應神) 御世避本國亂 率母并妻子 母弟遷興德 七姓漢人歸化 (中略) 于時阿智使主奏言 臣入朝之時 本鄉人民往離散 今聞偏在高麗百濟新羅國 望請遣使喚來 天皇即遣使喚之 大鷄鵄天皇(諡 仁德) 御世 舉落隨來 今高向村主 西波多村主 平方村主 石村村主 (中略) 西大友村主 長田村主 錦部村主 (中略) 尾張次角村主等是其後也 爾時阿智王奏 建今來郡 後改號高市郡 而人衆多居地隘狹 更分置諸國 攝津 參河 近江 播磨 阿波等漢人村主 是也.”

11) 宮地直一, 앞 논문, p. 345.

12) 『古事記』中卷 應神記. “又秦造之祖 漢直之祖 及知釀酒仁番 亦名須須許理等參渡來也.”

13) 『日本書紀』卷 19 欽明元年(540) 8月條. “高麗百濟新羅任那 并遣使獻 并修貢職 召集秦人漢人等 諸蕃化者 安置國都 編貫戶籍 秦人戶數 總七千五十三戶.”

14) 『續日本紀』卷 20 孝謙紀 天平寶字2年(758) 6月 乙丑條. “今年足人勝等 (中略) 轉自高麗歸化聖境.”

王化思想과 大國意識이 반영되어 있다.

日本史書에는 한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秦人’ ‘漢人’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렇지만 『古事記』전 『日本書紀』전 간에 ‘秦人’ ‘漢人’의 선조를 中國王室의 후예로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8세기 후반 이후의 史書에는 그들을 中國王室의 후손으로 명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日本의 고대 歷史書에는 편찬년대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中華의 大國主義 의식이 짙게 깔려있다. 이러한 日本 위정자들의 의식은 官人화된 ‘歸化’ 계 씨족들의 가계변경에서도 나타난다. 『續日本紀』나 『新撰姓氏錄』 등에 나오는 倭漢系 諸氏의 宗家적인 坂上氏의 계보가 그러하며 ‘秦人’의 경우도 이와 다를 바 없다.¹⁵⁾

『日本書紀』神功皇后 5年條에 보면 新羅王子 微叱許知의 倭國탈출 이야기가 나온다. 그 때 王子護送人 葛城襲津彦은 新羅의 草羅城(梁山)을 공격하여 사로잡아 온 사람들을 桑原 佐麿 高宮 忍海에 안치하니 이들이 곧 ‘四邑漢人’의 시조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¹⁶⁾ 神功紀 所傳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한반도 남쪽에서 많은 인민이 대거 일본으로 건너 간 내력을 설명해 주고는 있다.

坂上系圖에는 漢氏本系の 忌寸姓 約 60氏와 구별하여 7姓漢人의 자손과 村主姓 氏族 30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新羅에서 잡혀왔다고 한 ‘四邑漢人’도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앞서 인용한 坂上刈田磨呂의 上表文에 의하면 應神朝에 건너온 阿智王은 7姓漢人을 거느리고 渡來하였다고는 하였지만 村主姓 30氏에 관하여는 일체의 언급이 없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면 村主姓氏는 이때 일시에 이주한 것이 아니라 百濟나 新羅 등지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건너온 氏姓들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四邑漢人’은 新羅(梁山地方)에서 잡혀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村主姓氏 30氏 가운데 전부는 아니라 해도 ‘四邑漢人’을 포함한 많은 村主姓氏는 新羅와 연관성 깊은 지

15) 『續日本紀』卷38 桓武紀 延曆4年(785) 6月 癸酉條. “坂上大忌寸刈田麻呂等上表言 臣等本是後漢靈帝之曾孫阿智王之後也 漢祚遷魏 阿智王因神牛教 出行帶方(中略)及七姓民歸化來朝 是則譽田天皇(應神)治天下之御世也(中略)今在諸國漢人亦是其後也.”

『新撰姓氏錄』左京諸蕃上. “太秦公宿禰 出自秦始皇帝三世孫孝武王也(中略)男融通王(一云弓月王)譽田天皇(諡 應神)十四年 來率二十七縣百姓歸化(中略)仍賜姓波多.”

同書 山城國諸蕃 “秦忌寸 太秦公宿禰同祖 秦始皇帝之後也 功智王弓月王 譽田天皇(諡 應神)十四年 來朝 上表更歸國 率百二十七縣百姓歸化(中略)賜姓曰波陀 今秦字之訓也.”

16) 『日本書紀』卷9 神功皇后 5年條. “(前略)拔草羅城還之 是時乎人等 今桑原 佐麿 高宮 忍海凡四邑漢人等之始祖也.”

역으로 부터 도래하였고, 그 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야 東漢氏¹⁷⁾의 관리 하에 놓여졌을 것이라고 추정해도 좋을 것 같다. 앞서 논급된 坂上系圖의 내용에, 그들이 日本으로 오던 중 이산하여 高句麗, 百濟, 新羅 등지에서 거주하다가 다시 仁德朝에 도래하여 大和 高市郡에 안치되었다는 이야기는, 기실 이 시기(5世紀前半) 三韓民이 대거 이주해 온 사실을 반증한 내용이라 해도 좋을 법하다. 더욱이 『日本書紀』 雄略 15年(471)의 秦酒公 ‘仍領率百八十種勝’ 했다는 기록이나, 『姓氏錄』 山城國(日本 京都 일원) 諸蕃에 應神14年(403) 秦忌寸이 ‘百二十七縣百姓歸化’ 하여 大和 朝津間 腋上에 거주하였다는 기사는 新羅로부터의 대거 이주를 시사해주는 내용이다. 그렇기에 『日本書紀』 卷19 欽明元年(540) 8月條에 ‘秦人戶數 總七千五十三戶’ 라는 엄청난 호수가 기록될 수 밖에 없었다.

日本古代의 ‘村主’에 대한 기원이나 성격의 규명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新羅의 地方官職名인 ‘村主’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村首’와 같은 ‘邑里’의 장이 뒤에 ‘姓’으로 되었다는 설, 또는 日本의 독자적 官職名이라는 등 많은 설이 있다.¹⁸⁾

그러나 日本古代의 ‘村主’는 ‘sukuli’로 발음되고 있으며 이 ‘sukuli’는 韓國音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점만은 공통된 견해이다. 그래서 佐伯有清은 “긴 歷史속에서 변천해 온 ‘村主’의 성격을 同一時點에서 논할 수 없다”고 하면서 “‘村主’란 말도 族長과 연결되며 新羅의 官位·官職名으로 固定化되기 전에 歸化人에 의하여 ‘勝, sukuli’나 ‘村主’ 등 族長을 의미하는 일반적 명칭이 일찍이 日本에 들어와 그것이 歸化人 집단의 장의 경칭, 또는 칭호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日本 ‘村主’의 기원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¹⁹⁾라고 결론짓고 있다.

그런데 新羅의 ‘村主’에 대한 연구업적²⁰⁾에 의하면 ‘村主’는 지방통치기구 가운데의 하나라고 한다. 그 명칭도 매우 많다. 郡上村主, 郡中村主, 鄉村主, 眞村主, 外村主, 上村主, 第二村主, 第三村主, 本村主 등이 그것이며, 각기 신분에 있어서도 다소 다르다. 그러나 “新羅全般을 통하여 村主는 地方土着的의 門閥勢家라고 해도 틀림이 없으며, 특히 地方民衆과의 결합에서 社會의 실질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17) 『日本書紀』 卷10 應神紀20年 秋9月條에 “倭漢(aya)直祖 阿智使主 其子都加使主 竝率己之黨類十七縣而來歸焉”라 있다. 즉 東漢氏들의 ‘來歸’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들이 어디서 왔는가를 기술하고 있지 않다. 『姓氏錄』 『續日本紀』(註15) 등에서는 後漢靈帝의 후예라 하여 中國에서 온 것으로 되어 있지만 믿을 것은 못된다. 『三國史記』 卷34 雜誌3(地理志)에 “咸安郡. 法興王 以大兵滅阿尸良國(一云阿那加耶) 以其地爲郡 景德王改名 今因之”라 있어 阿尸良은 『日本書紀』 推古紀에 있는 ‘阿羅羅’다. ‘阿尸良’ ‘阿羅羅’는 ‘安羅’를 가리킨다. 漢(aya)은 安羅, 安耶이다(大和岩雄, 「天武天皇と東漢氏」, 『日本書紀研究』 第12冊, 1982).

18) 佐伯有清, 『日本古代の政治と社會』, 新羅의 村主と日本古代の 村主, 吉川弘文館, 東京, 1978.

19) 同上, p. 135.

20) 末松保和, 「竅興寺鍾名 附村主について」, 『新羅史의 諸問題』, 1954; 佐伯有清, 앞 책; 李鍾旭, 「南山新城碑를 통하여 본 新羅地方統治體制」, 『歷史學報』 64, 서울, 1974; 關晃, 「歸化人」, 至文堂, 東京, 1966; 村上四男, 「新羅의 村主」, 『朝鮮古代史研究』, 開明書院, 東京, 1978.

것으로 생각된다.”²¹⁾ 村主의 歷史的 기원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三國史記』 卷45 朴提上列傳에 나오는 村干을 村主의 선행형태로 보고 奈勿王(356~401), 實聖王(402~416), 訥祗王(417~457) 때는 이미 村主가 실존했고 地方制度가 정비되어 가던 智證王(500~514) 때는 王朝의 下部 地方職制로 계열화 되어 가면서 租稅, 勞役, 軍役의 수취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믿어도 될 것 같다

『日本書紀』 神功紀에 나오는 ‘四邑漢人’도 東漢氏 관리하에 들어가기 전에는 新羅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首長을 ‘村干’ 또는 ‘村主’라고 부르고, 그에 의하여 통솔 관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하여 뒤에 가서는 다시 桑原村主, 佐糜村主, 高宮村主, 忍海村主 등 거주지 지명을 딴 村主姓氏로 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만하다. 佐伯有清의 「村主姓氏族人名表」에 보면 日本 古代의 村主姓氏는 52氏나 된다.²²⁾ 그러므로 이 가운데 많은 村主姓氏가 新羅 ‘村主’와 관계깊은 것이라 믿어진다.

『倭名抄』(935년)에 大友村主의 貫籍이 滋賀郡 大友郷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이들은 처음부터 大友郷을 중심으로 滋賀村 錦部郷에 이주해 온 秦人, 곧 新羅출신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들의 氏寺인 園城寺는 長等山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이 산의 地主神인 三尾明神은 대대로 秦氏에 의하여 奉祀되고 있다.²³⁾ 그리고 園城寺 경내에서 출토되는 古瓦는 白鳳期(672~686)의 新羅樣式의 것이 많다고 한다.²⁴⁾ 이는 大友村主와 新羅와의 관계를 웅변으로 증명해 준 셈이다.

漢氏는 中央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발전해 간 반면 秦氏는 地方土豪勢力으로 정착해 갔다고 한다.²⁵⁾ 秦首, 秦公, 秦連, 秦勝, 秦人, 秦子, 秦冠, 秦姓 등 秦氏와 관계되는 地方小豪族의 기록이 많이 나온다. 이와 같이 在地勢力으로 발전해 가므로 일찍부터 固有信仰과도 융합하고 이상할 정도로 神祇의 신앙에 밀착하고 있었다 한다. 京都盆地에서의 賀茂, 松尾, 稻荷 등 神社를 비롯하여, 月讀(山背), 大酒(山背), 香春(豊前), 宇佐(豊前), 白國(播磨), 大僻(播磨), 敬滿(遠江) 등 諸社와의 관계가 곧 그러하다.²⁶⁾ 그리고 道敎的 思想의 도입과 전과도 이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펍 흥미로운 일이다.²⁷⁾

滋賀의 大友村主家도 ‘滋賀郡擬少領從七位上’ ‘大領從八位上’ 등 官位가 주어진 것으로 보면 그곳 土豪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古代·律令國家 형성기에는 新羅의 ‘村主’가 수행해 갔던 역할의 일부를 이곳에서도 담당해 갔을 가능성이 있음직하다. 그러므로 원진의 新羅明神의 迎奉은 당시 그 곳 移住民社會의 거대함과 그들의 土豪的 성격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증거라 하겠다. 더욱이 平安時代(1194~1185) 末期의 新羅明神은 後三條天皇(1069~1071)까지도 재앙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

21) 村上四男, 앞 책, p. 334.

22) 佐伯有清, 앞 책, pp. 108~118.

23) 『寺門傳記』 5. “社司秦河勝之胤有臣國者 始任當社神職 自厥以來秦氏連綿相繼.”

24) 石田茂作, 「三井寺發見의 古瓦に就いて」 『園城寺之研究』, 昭和6年(1931), 京都.

25) 關晃, 앞 책.

26) 平野邦雄, 앞 논문, p. 42.

27) 上田正昭, 『歸化人』, 中公新書, 東京, 1965, p. 143.

시대에 군림하고 있었다.²⁸⁾ 뿐만 아니라 平安末期 ‘武家’ 세력의 등장과 더불어 源氏が ‘新羅明神’을 극진히 숭봉하였던 사실²⁹⁾을 단순히 이 神의 靈驗的인 의미에서만 이해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된다. 日本 ‘武家’ 세력의 성장은 地方土豪勢力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III

大津市の 園城寺는 원래 新羅移住民 大友村主家の 氏族寺다. 그 곳에 奉齋된 新羅明神은 이들 이주민들이 遷祀해 온 신이다. 이 氏族이 언제 大津 일원에 정착했는지는 지금 확실치 않다. 늦어도 白鳳期 이전에는 이곳으로 진출하여 그 지역의 土豪로 성장한 듯 하다. ‘村主’姓氏의 형성과정과 園城寺 경내에서 출토된 新羅系 古瓦들이 그러한 추측을 뒷받침 해준다.

日本の 古代 村主姓氏는 新羅의 ‘村主’와 관계있는 것이라 믿는다. 新羅의 ‘村主’가 지방 통치기구의 수장으로 주로 租稅, 勞役, 軍役의 수취를 담당해 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초기 日本의 村主도 그러했을 것이라 믿어진다. 大友村主家도 古代·律令國家 형성기에 그와 비슷한 구실을 지금의 大津일원에서 수행해 갔을 가능성이 짙다.

862年 圓珍이 新羅明神을 迎奉했다는 사실이라던가 異國神에게 正四位上의 위를 수여했다는 일 등은 당시 그곳 이주민 사회의 거대함과 그들의 土豪的 성격에 반증한 좋은 예라 하겠다. 더욱이 山門派와 寺門派가 모두 新羅神을 앞세워 相爭하였다는 사실과 또 그 神이 당시의 天皇까지도 재앙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주민 사회의 실상이 어떠한가 짐작케 한다. 平安末期 源氏 ‘武家’ 세력이 등장하면서 이들은 이 神을 극진히 신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이 神의 靈驗性만을 가지고는 해석할 수 없다.

28) 『大日本佛教全書』園城寺傳記 寺門傳記補錄 第2 祠廟部 乙. “後朱省院御宇 寺門奏請建三摩耶戒壇 朝廷問立不於諸宗 皆以奏可焉 獨山徒不肯 因茲朝議未決 勅裁送年 至後三條院御時 寺門忘訴 朝家不容 聖斷如忘 (中略) 新羅明神社頭大鳴動焉 延久四年春 聖躬不予 帝太驚懼 (中略) 叡慮尚未堪恐怖以十二月八日遁位 受太上天皇號 然而御惱 未曾減 仍又差兵部少輔藤原朝臣通俊 爲宣命使 往新羅神祠 以贖罪焉 明年四月 復進宣命 宥神無驗 今茲五月七日太上天皇崩 初度宣命 掛畏新羅明神廣前 太上天皇恐申 (中略) 大明神此危守給.”

29) 同書 降伏朝敵. (前略) 勅相摸守源朝臣賴義授陸奥守鎮守府將軍 爲追討使以往焉 (中略) 進發之日 詣新羅明神祠 獻一封誓狀以告丹祈 其文曰 傳聞當社權現者 遠來異域 守佛法守王法 千變萬化 雲雨難測 (中略) 以明神之加護 遂朝敵之誅戮 (下略).”

新羅源氏. “(前略) 以三男義光爲新羅太神氏人 名曰 新羅三郎 (中略) 而今予州以三郎義光爲新羅氏人來由者 予州蒙勅討逆臣安倍貞任宗任等時 捧一紙誓狀於新羅祠曰 若依神力果願念者 宜以所生一子 列學業衆徒以報神恩 爰予州左任之間生一子 三郎義光是也.”

9세기 滋賀郡 日本人들의 新羅神信仰을 宗教的 시각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수세기에 걸쳐 系統的이고 집단적인 진출을 해 온 新羅 이주민사회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서야 올바른 해명이 가능하다.



日本國寶 木造 新羅明神坐像